

차폐강도 및 주파수 변화에 따른 음성의 변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

이노희·이상혁·진성민·이경철·반재호

목 적 :

Auditory feedback은 음성조절 및 성대 기능을 조절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차폐음의 강도와 주파수에 따라 연속된 단모음과 문장 발성 시 변화되는 F0, 강도 및 음성 안정도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자 하였다.

방 법 :

청력 및 발성기관에 이상이 없는 27~32세까지의 남성을 대상으로, 연속된 /ah/ 모음 발성과 가을 문장의 일부를 발췌하여 읽도록 하였고, CSL의 MDVP와 Real time speech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의 F0, 발성강도, jitter, shimmer, NHR을 측정하였다. 이때 차폐강도는 0 dB, 50 dB, 80 dB로 하였고, 50 dB와 80 dB 차폐강도에서 백색잡음, 250 Hz, 1,000 Hz, 8,000 Hz로 주파수 변화를 주면서 음성변화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결 과 :

연속된 단모음 /ah/ 발성 시, 백색잡음과 각 주파수 별 순

음 차폐강도의 증가에 따라 F0와 발성강도는 증가하였고, jitter, shimmer, NHR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주파수 변화를 달리하여 동일한 강도의 순음을 차폐를 한 경우는 주파수 증가에 따라 F0와 발성강도의 변화가 일정하지 않았으나, jitter는 80 dB masking level에서 감소하였으며, shimmer와 NHR은 50 및 80 dB masking level에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문장 발성 시, 백색잡음과 각 주파수 별 순음 차폐강도의 증가에 따라 F0, 발성 강도는 증가하였고, 주파수변화를 달리하여 동일한 강도의 순음을 이용한 차폐를 한 경우는 80 dB 차폐강도에서 주파수 증가에 따라 F0와 발성강도가 증가하였다.

결 론 :

단모음이나 문장에서 모두 차폐강도의 증가에 따라 목소리의 음도와 강도가 증가하나, 주파수 변화에 따라서는 80 dB의 차폐강도 하에서 문장 발성의 경우만 주파수 증가에 따라 목소리의 음도와 강도가 증가하였고, 나머지 경우에서는 일정한 유형의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